

대중 청정·화합위해 계 제정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0>

서계분(序啓分)(經序)

이와 같이 들었다.
한 때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계셨다. 그 때 정반왕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경드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쭙었다.
"스님 제도하기를 청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의 뜻을 애민히 여겨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왕이 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를 위하여 계의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제정하셨습니까. 원컨대 여래께서는 또한 저희를 우바새를 위하여 오계에 있어서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시어 계상(戒相)을 잘 알아 의욕이 없게 하소서."

가유라위는 중천축에 있는 나

라 이름이다. 의역하여 '황작성' 또는 '묘덕성'이라 한다. 세존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석가족의 국토인데 현재는 이 성이 황무지로 되어 있다. 정반왕은 중인도 가유라위국의 성주이고 세존의 아

오계상경-4

버지이다. 왕후는 마야 부인이고 왕비는 마하파사파제이다. 정반왕은 76세에 임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에서 부왕(父王)을 근거로 해서 오계의 법상을 청하는 것은, 이 오계법이 삼세 제왕의 아버지임을 나타낸 것이다. 오계에 의지함으로써 시방삼세의 일체 제왕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출생할 수 있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교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교담

(Gautama)이여, 나도 본래 오래 전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바새들에게 오계를 분별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선남자가 있어 잘 받아 지녀서 범하지 않는 이는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범하고도 부우치지 않는 이는 항상 삼악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

계 받아 범하지 않으면 성불 인연 범계 후 참회하면 삼악도 벗어나

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계율이다. 즉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제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하여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한다. 이처럼 부처님이 계를 제정하실 때는 반드시 인연을 기다렸다가 계를 제정하셨는데, 출가한 대중을 위해 계를 제정하신 뒤에 마을 속으로 우바새 즉, 재가자를 위해 오계를 제정해 주

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계율이다. 즉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제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하여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한다. 이처럼 부처님이 계를 제정하실 때는 반드시 인연을 기다렸다가 계를 제정하셨는데, 출가한 대중을 위해 계를 제정하신 뒤에 마을 속으로 우바새 즉, 재가자를 위해 오계를 제정해 주

고자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하셨지만 정법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의 부왕이신 정반왕이 친히 재가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법을 청하였기 때문에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거듭 찬탄하신 것이다. 인도에서 쓰는 성을 부르는 것이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에도 '교담이여!' 하고 부른 것이다.
누구나 계를 받아서 잘 지켜

법하지 않으면 곧 부처가 되고,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도에 떨어진다. 오계를 법계라고 하는데, 십법계(불·보살·연각·성문·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에는 오계를 근거로 나아가는 곳도 있고 오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나아가는 곳도 있다.

계를 잘 받아 지키면서 범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도를 이루겠지만, 계를 받고서 범하는 이는 성불할 수 있을까? 또 계를 받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항상 삼악도에(지옥·아귀·축생)에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 계를 범하고 난 후 참회를 하는 이는 삼악도에 떨어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계를 받고 범하는 이도 마땅히 성불하게 되지만, 계를 받지 않은 이는 영원히 성불할 인연이 없게 된다. 범하였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계의 내용이 상중하로 나누어지고, 참회하는 데도 작법참회, 취상참회, 무성참회의 세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치상으로도 각각의 계에 저마다 밝혀져 있는 것이 다르므로 한 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역시 성불할 수 있다. 다음 주에 그 예와 세 가지 참회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해인총림 올원장>

"받기보다 주며 사는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며칠 전에 봉선사 운경 큰스님이 열반했습니다. 운경스님은 원래 자비하시고 포교에 적극적이었지요. 종단을 구별하지 않고서도 찾아오신 기적이 응하며 도우시고 법문해 주셨어요. 항상 스님들에게도 포교해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열반하기 전에 스님 몸이 움직이지가 불편하다며 웃으면서 모음이 눈에 선합니다. 이미 스님이 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대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운경 큰스님이 아랍어로 바로 그렇게 살다 가신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들이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냐 하면서 오물통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 나라를 찾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뜻을 굽힌 민족대표와 조선총독부를 보지도 않기 위해 총독부 반대편에 자리를 잡은 심우장에서 줄곧 사셨습니다. 부당한 것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만해스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 불자들은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는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3·1절날 희생된 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리기도 보다는 쉬는 날이라고 놀려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관한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 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나로 인해 있기 때문입

법회중계

의정부포교원

<2000년 3월 5일>



혜능스님 <의정부포교원장>

가정 종교 국가위해 나 버릴 수 있으면 세상도 바꿀 수 있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위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모두가 크게 광동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불자들은 개인주의를 추구하지 말고 대중적 차원에서 가족, 종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행동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법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불자가 됩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위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모두가 크게 광동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불자들은 개인주의를 추구하지 말고 대중적 차원에서 가족, 종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행동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법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불자가 됩시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문학적 높은 불서 읽으며 불교 접근

도 스토에프스키, 부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문인을 배출한 러시아. 이곳의 지식인들은 불교의 철학적이고 문학적 언술에 커다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사론>과 같은 논장을 주로 연구하고, <니카야(아함경 일종)> <자타카(본생담)> 등 문학적 요소가 많은 불서들을 즐겨 읽는다.

세계의 불교학 <10> 러시아 ①

기대를 잡은 사람은 독일계 러시아 동양학자인 야삭 야콥 슈미트(Isaak Yakob Schmidt · 1779~1847)였다. 당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갈목 민족 연구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그 후에 점차 관심을 서양 학과 불교학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서장본 <금강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인도불교사>를 독어로 역주하는 등 다양한 연구서를 남겼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독어로 쓰인 그의 논문과 번역본들이 서구 학계에 소개되어 널리 읽혀졌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 불학이 처음부터 서구 불교 연구자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 서구 불교 연구 발전에 부단히 기여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슈미트와 같은 또 한명의 독일계 러시아 불교 학자 로버트 렌츠(Robert Lentz · 1808~1836)는 런던에서 필사본(보요경(Laitavistara))을 발견해 유명해졌다. 슈미트의 연구 주제를 이어 받은 코발레프스키(O.M.Kovalevsky · 1801~1878)는 또한 현재에도 널리 읽히고 있는 <불교 우주관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갈목학이나 서장화 등의 지역 연구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불학을 성립시킨 사람은 코발레프스키의 제자인 성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양학부 교수 바실레트(V.P.Vasilyev · 1818~1900)였다.

17~18세기 몽골족서 불교 도입 제정러시아 불학연구 적극 장려

다. 중국학을 전공하여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는 중국·서장·몽골·만주 등의 동양 언어의 각종 불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존의 개별 연구에서 벗어나 대·소승의 철학적 요소를 체계화하고 인도·서장·중국불교사 등을 서로 연관 지어 연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커다란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채 <불교의 교리, 역사, 교파> 상권만 남기고 생을 마쳤다. 이후 인도학자 미나에프(I.P.Min



러시아에서 초연된 불교학자연구 '먹구름'을 읽고, 태양을 향해 의 공명장면.

극히 타락하여 지나친 의식 위주와 미신·기복적으로 진보 지식인의 멸시를 샀던 러시아 정교(Orthodox Church)에 대한 지식인 계층의 부정적 태도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일부 러시아 지식인들의 호의적인 수용 태세는 정교와 일부 사상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의 '종교적 변질'을 감지한 정·교계는 불교에 대한 치열한 사상적 반격을 가하였다. 물론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갈목이나 부리아트의 전통적 라마교 신앙이 아니라 정치가·시인·소설가들의 친불교적 태도였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기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향은 佛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애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 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실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도: 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 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음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물음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원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오분향을 찾아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래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듯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가득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투어 부처님께 공양하려 열반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뻑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남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은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향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심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꽃이가 부처되어 있습니다. ● 공금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심화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